

길 원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기와마을은 이를 위해 도내 농촌체험마을이 모여 만든 (사)충남농어촌휴양체험마을, 부여군 농촌체험마을협의회, 굿뜨래 체험학습 협의회 등을 구축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2013년도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농장사업 및 마을기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마을 소식지 발행, 출향인과의 체육대회, 학교 소풍 연

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은 언뜻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필자가 느끼기에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을의 특화된 이미지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와마을은 전국 어디서든 선뜻 나설 수 있는 가고싶은 체험마을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는다.



## [부여기와마을 패키지 여행]

### ● 찾아가는 길

부여기와마을은 이정표만 보고 자기운전해서 가기가 그리 쉽진 않다. 내비게이션에 주소검색으로 찾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일단 기와마을은 고속도로 이용시 지역에 따라 남공주IC, 혹은 부여C로 나오면 되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바로 위치해 있다. 그리고 부여읍내에서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2리 1027-1(T.041-834-8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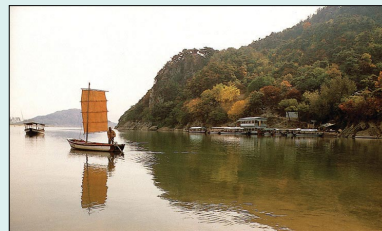
▶ 인터넷 : <http://kiwa.utovil.com/www/home/m1301000000/index.do>

### ● 주변관광지

부여는 옛백제의 도읍지로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볼거리, 먹거리 등이 풍부하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한 여행이라면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 궁남지, 백제역사재현단지, 그리고 부소산성을 한바퀴 돌면 만날 수 있는 고란사, 낙화암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부여구드래광장에 있는 음식 특화거리나 5월(1, 5)마다 열리는 부여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최근 백제역사재현단지 앞에 지어진 롯데부여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도 풍부해 당일코스보다 체류형 관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짚풀공예 체험〉



〈백제떡 만들기 체험〉



〈손두부 만들기 체험〉



〈제기차기 체험〉

즐거워했다. 아무래도 먹거리에 많은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역시 지구촌(?)이다.

더구나 재밌는 건 마을주민들이 비록 영어를 할 순 없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불안한 얼굴로 뭔가를 찾는다 싶으면 “어~ 화장실? 저기로 가~”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걸 알아듣고 “감사합니다!”하며 알아서 간다.

참가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 앞 논밭에서 연날리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마을을 찾은 게 처음”이라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체험행사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어

기와마을은 현재 4개동의 펜션형 민박과 식당, 그리고 체험장과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체험객을 맞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시설들을 위원장 혼자서 도맡아하진 않는다.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각 농가들은 일정부분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주민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고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

들기, '솻대 만들어 소원빌기' 등이다. 물론 사시사철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메뉴(?)가 준비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열기구를 이용해 부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한다.

## ● Welcome! 어여 와~

필자가 기와마을을 찾은 날은 사실 부담스러운(?) 날이었다. 햇볕 좋은 2월의 어느 날, 여전히 춥고 바람까지 날뛰어서가 아니다.

다름 아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찾은 외국인 대학생 250여명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는다는 것이다(물론 미리 알고 이날 방문한거지만...).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우리나라 각지 농산어촌으로 들어가 방과 후 영어수업을 맡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다. 마을어른들은 이에 대해 “기특하다”며 반기는 눈치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주민들은 이들과 함께 할 짬뽕공예, 손두부 만들기, 백제떡 만들기, 전통놀이 준비, 그리고 점심식사용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이나 분주하면서도 들떠 있었다.

정 위원장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오전10시쯤 되니 외국인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6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우리 시골 풍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부여기와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들 모습〉



체험객 중 Taylore Beatty(23, 美, 사진)양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기대가 많다.”면서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낙 참가인원이 많다보니 5개조로 나누어 짬뽕공예, 손두부 만들기, 백제떡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파트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선 필자의 눈에도 맛 있어 보이는 따끈따끈한 인절미를 원했었는지 배에서 무척이나 꼬르륵거렸다. 외국 대학생들도 절구통에 익힌 찹쌀을 떡메질하며 무척이나 재밌어했다. 그리고 직접 두부콩을 팻돌에 갈아보며





어찌보면 ‘기와’라는 이미지를 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생각해 바뀔 수도 있다. 기와 마을하면 웬지 기와집이 많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 마을은 원래 광산김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현재 총90가구 중 약 40%는 여전히 광산김씨가 차지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엔 광산김씨 사당을 비롯한 200~300년 된 전통가옥이 10채 정도 있고, 현재는 가옥보존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상태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오래된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움에 취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 마을의 재미는 다양한 체험에 있다.

기와마을이 자랑하는 체험과 놀이에는 ‘백제떡 만들기’, ‘손두부 만



〈부여기와마을 안내도〉

- **연중행사** : 미꾸라지잡기체험, 짚풀공예, 솥대 만들기, 쌍육놀이체험, 밤염색체험, 백제떡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시티투어-함께하는 부여관광체험, 꽃마차 타고 문화단지 견학, 백제토기 만들기, 황포돛배 타기체험, 수박젤리만들기 등
- **봄** : 나물캐기, 수박수확체험, 봄꽃구경 등
- **여름** : 오이·호박따기 체험, 물놀이 풀장 운영 등
- **가을** : 김장체험, 오이소박이담기, 전통타작체험, 벼베기, 고구마캐기체험 등
- **겨울** : 고구마 구워먹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등



〈기와마을 풍경〉



〈부여기와마을 정하진 위원장〉

정 위원장은 원래 고향이 이곳이었는데, 직장 생활로 떠나 살다가, 지난 2003년 아버님의 작고로 다시 귀촌, 부모님의 땅을 물려받아 농사짓게 되면서 체험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사업도 배울 겸 사무장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 겸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마을이 특수작물 재배로 주민 모두가 부촌의 꿈을 이루고 살다보니 마을 공동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서 “점차 끈질긴 설득과 교육 참여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업을 하나 둘 진행하다보니 마을에 체험객 및 숙박객이 찾아오고, 매출도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점차 참여의사를 보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마을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점점 사라지고 주민 교육 및 업무 분장, 출자금제 전환 등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점점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주민 화합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8,459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중 단순 방문객을 제외한 6,355명이 당일 혹은 숙박을 하며 체험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농촌마을체험, 음식 판매, 숙박, 특산물판매 등으로 작년에만 1억1,800만원의 매

출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에는 기존 사업 이외 교육농장을 추가하기로 이미 결의하기도 현재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90가구 중 58.9%인 53가구가 해당된다.

기와마을 이영자(73)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직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창피해 했는데, 지금은 마을어른들이 모여 이런 일 한다고 하니 너무 자랑스러워 하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주는 재미가 솔솔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부여기와마을 이영자 할머니〉

### ● 기와마을에 기와집만 있나구요?

기와마을로 마을이름이 변경된 건 2008년도다. 백제시대 때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오얏골(와봉)이라 불렀고, 조선 말기에는 부여군 몽도면 지역으로 큰 샘이 있어 샘골 또는 정동이라 하였다(지금도 마을 한 가운데에 우물이 있음).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소룡리 일부와 현내면 북촌리 일부를 병합하여 정동리라 하였는데 면민개칭에 따라 정동1, 2리로 구분되었고, 그중 정동2리의 새로운 이름인 ‘기와마을’은 각박한 아파트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회의를 통해 변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 백제문화와 농촌 체험이 공존하는 부여 기와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우리 시골마을은 전통적으로 초가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즘의 시골마을은 어떤가? 사실 안동 하회마을이 아닌 이상 굴뚝연기 피어나지 않는 특색없는 농촌마을의 모습이 대부분일 것이다.

### 기와마을 정하진 위원장을 만나다

부여에는 이 기와를 소재로 옛 정취를 느끼면서 체험과 백제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준비된 마을이 있다. 바로 부여기와마을이 그곳이다.

물론 처음부터 잘 했던 것은 아니다. 충남도와 부여군, 그리고 지역마을사업 관계자 등과의 끊임 없는 정보교환과 실패마저 이겨낼 줄 아는 농촌사랑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기와마을을 농협이 인증하는 ‘팜스테이마을 (2007)’,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8)’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정하진 위원장(50)이다.